人間發達硏究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94. *Vol. 1, No. 1,* 100－111

Erikson의 인간발달론에 제시된 '발달원리'에 대한 일고찰

박 아 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고는 Erikson이 제시한 'Epigenetic chart'을 중심으로 그의 인간발달에 대한 기본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그의 발달이론은 3가지 이론적 구조 즉, '세대계승', '역사', 그리고 '자기 초월'이란 3개의 이론적 기둥을 주축으로 구성된 '인간형성론'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Erikson의 '발달'에 대한 개념도 이러한 개념체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았다. 아울러 그의 'grand plan'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용어 예컨대, '덕'(virtue)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Erikson의 발달론은 '분화'의 프로세스로서 미분화한 것이 순서를 갖고 분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발달을 항상 하나의 정리된 것을 가진 모습으로 구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인생주기 · 점성적 발달 · 인간형성론

Erikson의 발달이론의 매력 가운데 하나를 정교하게 시각화시킨 '그림표(Epigenetic chart)'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수년전 연구자에 의해 소개(박아청,1984, 1990, p. 55)된 이 그림표는 아마도 근래에 출판된 발달이론 교과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의 그림표는 인기가 높다.

실제로 인간형성을 구상할 때 이 인생주기(life-cycle) 그림표가 제시하고 있는 역할은 공헌이 다대하다. 예컨대, 15세 소년의 퇴행현상이 갖고 있는 인생전체에서의 위치와 의미를 생각할 때 시각화된 그림표를 염두에 둔다면 문자그대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그림표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현실에 대한 안목을 오히려 어둡게 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나아가서 이 그림표를 '이상적인 인간발달상'으로 인식한 나머지 '검사목록'으로서 취급하는 경우를 만들기도 한다. 사실 오늘날 많은 발달연구가들은 이 그림표에서 제시된 인간의 발달상을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발달상으로 과신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특히, 근래 우리나라 발달이론 교과서에서 이러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미 이 그림표는 '문화적, 역사적 상대성'을 무시한 것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Weinstein과 Platt는 이 그림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하여 "이 용어들은 산업화된 현대사회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 있어서만이 통용되는 것으로 만

일 산업화된 현대사회 이전에 정신분석가가 있어서 '인간의 발달단계'를 기술했다면 결코 이렇지 않았을 것"(1973, p. 58)이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Erikson의 발달이론은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field work에서, 또는 종교개혁자 Luther나 인도의 무저항주의자 Gandhi의 전기연구 같은 것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의 발달이론을 이해하려면 그의 인생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Erikson의 발달론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본 소고에서는 Erikson에 의한 발달연구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고찰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발달연구를 가능하게 한 이론적 구조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그의 발달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Erikson의 인간발달에 대한 이론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그의 그림표를 들어 말하자면 기입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평면 그림표 그 자체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하는 문제, 말하자면 발달의 내측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외측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발달을 축으로 한 인간형성론

Erikson은 구체적으로 인간발달을 몇가지 개념 예컨대, '세대계승', '역사', 그리고 '자기초월'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시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 몇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의 발달론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자.

한사람 한사람이 발달한다는 것은 첫째로 앞의 세대에 의해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에서만 성립된다고 한다면 발달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자식으로부터 손자에게로'식의 연쇄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일까하는 점이다. 두번째로 발달이 개개인의 역사의 한 장면에서만 성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발달은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번째로는 발달이라는 것이 때로는 비연속적인 비약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비약이 예컨대, 일상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발달은 자기초월의 축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Erikson이 논의하고 있는 장면을 몇가지 거론해 본다면 예컨대, Sam이라는 5세 남자아이의 자아발달의 위기를 보고할 때, 할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일상적인 사건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고 그 유태인인 가계의 의미를 역사의 사건과 관련시켜 보고 있다(1963, Part 1, Ch. 1).

그리고 Erikson은 Martin Luther라는 한사람의 청년의 가치관 형성을 추구한 경우(1958)에는 그가 첫째로 부친 Hans로부터 어떠한 가치관을 전수받아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으며, 두번째로는 중세 카톨릭교회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상의 권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가 하는 점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세번째로는 이 세상의 논리를 어떻게 초월하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 생활영위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나아가서 Erikson은 중년 Gandhi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거론할 때(1969)에는 늙은 아버지를 극복한다고 하는 부자갈등의 주제를 반영정치투쟁의 전술 속에서 찾아 진리의 실천이라고 하는 초월축을 아내 또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고, 단식이라고 하는 전쟁수단으로 실현되는 진리의 초월성을 찾고자 하였다.

말을 바꾸어서 한다면 예컨대, Luther의 청년위기를 부자갈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Gandhi의 중년위기를 보는데 가정내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인도의 독립이라는 역사를 간과하거나 또는 진리의 실천이라고 하는 자기초월의 축을 빠뜨려서도 그 전체적인 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발달론은 '가정이나 교육을 장면으로 한 세대계승'과 '변동하는 정치나 시대의 역사'와 '일상적인 의식을 초월한 자기초월'이라는 3가지 축을 이론적 구조로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Homans(1978)의 종교연구에서는 ①신학적인 '초월'의 차원, ②사회학적인 '질서'의 차원, ③심리학적인 '자발성'의 차원이라는 3가지 시점이 존재하는데 Erikson의 방법은 보통 생각하는 듯이 심리학적 방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3가지 차원을 모두 겸비한 다면적 검토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p. 234).

만일 그렇다면 Erikson이 말하고 있는 발달론은 부모자식관계론이나 교육학은 물론 사회변동론이나 역사학과 함께 놀이이론이나 종교학까지도 내재적으로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아동의 발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즉, '발달한다'고 하는 것 가운데 '부모가 되어 간다는 것',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그의 그림표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림표는 앞뒤의 다른 세대의 그림과 비껴가면서 단계별로 중복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그림표는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표의 일시점(historical moment)의 사건을 말하며 나아가 그러한 평면과 직교하는 수직축을 각 인생단계가 각기 나누어 개시되어 진행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입체공간을 배경으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Erikson의 발달론은 종래에 말해 온 일차원적인 발달론의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발달이론은 인간의 발달을 축으로 한 '인간형성론'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주된 입장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3가지 기본적 구조 즉, '발달을 세대계승으로 보는 입장'이며 '발달을 역사로 보는 입장'과 '발달을 자기초월과 관련시켜 보는 입장'인 것이다(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간형성'이란 말은 영어의 formation이나 독어의 Menschenbildung의 뜻으로 매우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교육'이나 '인격발달' 또는 '사회화'란 개념이 '인간형성'의 일측면을 한정하는 것으로, 본고에서 논의되는 '인간형성'은 자명한 전체로서 또는 보다 넓은 이론적 시야로서 그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의 시도는 그 자명한 전제를 구조화시킴으로써 '인간형성'이라고 하는 말을 내측으로부터 규정해 들어가고자 한다.).

인간형성론으로서의 발달이론

본 소고에서 연구자가 Erikson의 발달론을 인간존재론이라기 보다는 '인간형성론'이라고 본 것은 첫째로 적어도 발달을 보는 그의 시점이 고정적, 정지적 또는 구조적이라기보다는 발생적, 발달적 그리고 변화적이라는 측면이 강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자를 '영원한 상(像)의 근원'으로 보편적 존재양식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상의 근원'으로서 과정(過程)으로서 끊임없이 바뀌고 옮기는 상으로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이라는 용어가 인간존재론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인간존재론에서는 어린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그 구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양식이야말로 추구해야 할 주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비해 인간형성론은 '아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본질적인 카테고리로서 확정함으로써 '인간'이

아동일 때 성인일 때와는 전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청년이라는 인생의 일시적 시기의 특수성,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총체로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과정(process)로서 유지하면서 시야에 담으려고 한다. 말하자면 사진 속에 고정된 인간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진(영화)에 의해 비로소 움직임을 유지한 채 영사하여 보여주는 인간상을 인간의 일생이라는 시간대 위에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인간형성론은 '아동'이라는 카테고리를 세움으로 실은 인간존재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즉, 그것은 인간존재론이 다루는 '인간'은 무감각적으로 '성인'이라는 특수한 일시적 시기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인남성, 나아가서 '근대서구문명의 성인남성'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극히 특수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그 특수한 인간이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것에 인간존재론이 취급하는 '인간'이 성립하지 않았던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게 이 점은 뒷면에서 본다면 인간형성론이 여전히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Erikson의 여성론 즉, 여성의 청년기 발달에 대해 논한 '여성과 내적 공간'(Womanhood and the inner space, 1964, *Identity: youth and crisis*(1968)에 수록)에 대한 Gilligan(1978)의 비판과 Chodorow(1978)의 반론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인간형성론이란 과제에 대해서는 Erikson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것이 아니므로 넘어가고자 한다.

두번째로 동일한 아동을 본질적인 카테고리로서 갖는 '아동의 인간학'도 역시 인간형성론과는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인간학이 아동의 독자성이나 그 존재양식의 해명에 촛점을 집중시키는 것에 비해서 Erikson의 발달론은 아동의 독자성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 아동이 성인이 되고 다음에는 차기 세대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되어간다고 하는 프로세스 속에서 아동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동을 본다고 하는 것도 아동복과 같이 고정된 영원의 아동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전체 속에서 위치가 정해진 하나의 인생단계로서 아동을 보려는 것이 Erikson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인간형성론은 인생을 단면적으로 절단하여 횡단면으로서의 아동학, 청년학, 성인학, 논인학 등과 같은 식으로 가산적인 축적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상호간에 어떻게 상대적 또는 관계적으로 중복되어 하나로 정리된 프로세스로 되어가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세번째로 Erikson의 발달론은 '발달'이라고 하는 시점을 갖는 발달심리학과는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형성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발달심리학이 근대학문으로서 성립함에 있어서 우선 아동의 발달에만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사실은 그 성립상황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야는 일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발달심리학은 그 많은 부분을 인생전반의 '상승기'만을 다루고 '발달이 완료하는' 청년기에 그 임무를 마치고 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생후반 말하자면 '하강기'는 스스로 취급하기를 포기하는 셈이 되어버렸다. 중요한 것은 그 귀결로서 '발달'이란 '상승'이고 '진보'인 것처럼, 또는 '발달'이란 가치서열에 오르는 것, 기성의 완성모델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처럼 개념규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발달'을 그와 같이 규정하는 한, 발달이론에 대한 비판 즉, '반발달론'이 대두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

운 결과일 것이다(발달심리학의 역사를 발달의 사상과 관련시켜 검토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자 한다). '발달=진보'로 보는 사상은 '생산성의 확대'라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생각하는 근대자본주의 사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발달은 '진보'(progress)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발달'이란 말을 '진보'란 말과 구별한 의미로 정의를 내린다면 본래 발달이란 말의 어원인 development나 Entwicklung라는 말이 예컨대, 네가티브 필름의 현상을 의미하고 있듯이 '감긴 것을 풀어가는 것,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개화되고 발현되어 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가치서열의 상승 내지 진보라는 의미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발달단계(development stages)'의 '단계'를 가치의 상하관계가 아니고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전개되는 연극무대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연극의 내용이 순서를 가지고 전개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개인의 인생에서 본 것이 '발달'이므로 인간형성론이란 인생전체를 몇개의 단계를 가지고 전개되는 발달의 모습을 묘사하려는 이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간 일생의 '성장기'도 '쇠퇴기'도 전적으로 동일한 자격을 가진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대두되고 있는 평생발달심리학(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이 발달의 개념을 생애전체에 걸친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는 점은 시사점이 많다(박아청, 1983).

'그림표(epigenetic chart)'에 나타난 발달과 구조

Erikson의 '그림표(epigenetic chart)'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만든 용어인 'epigenesis'란 어떠한 발달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점성적 발달', '발달분화' 등 여러가지로 번역이 시도되고 '보다 기초적인 것 위에', '보다 미분화된 것이 시간과 함께 다음으로 분화되어 가는 발달의 양상'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 epigenetic principle에 대해 Erikson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 이 원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① 성장하는 것은 모두 grand plan을 갖고 있으며, ② 이 grand plan으로부터 각 부분이 발생하고, ③ 그 때 각 부분은 각자의 성장이 특히 우세하게 되는 시기를 가지며, ④ 모든 부분이 하나의 기능적인 통일체를 형성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것이다 (1968, p. 92).

여기에서 4가지로 나누어진 명제는 얼핏 보기에는 모두 같은 차원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첫번째의 명제와 다른 3가지의 명제와는 구별이 된다. 그것은 이 정의는 정확하게는 '성장하는 것은 모두 grand plan을 갖는다'는 대원칙과 그것을 전개시킨 3가지 설명명제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epigenetic principle이란 우선 무엇보다도 grand plan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grand plan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1940년 출판된 의학사전(Problems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Encyclopedia of Medicine*. Davis & Co.)을 비롯하여 Erikson의 *Childhood and Society*에서도 태생학을 모방한 epigenetic development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 grand plan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발달의 내적 법칙(inner laws of development)'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Schlein, 1987, p. 550).

그런데 이 '발달의 내적 법칙'이란 '선천적(in-

nate), 내인적(endogenous)인 행동형태'로 이해되고 있는데 grand plan이란 그러한 '생득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달의 내적 법칙이란 용어를 굳이 grand plan이란 용어로 바꾼 것은 발달에 대한 그의 이해가 '발달의 전체성'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간다. 즉, grand plan이란 발달을 하나의 정리된 것으로 보아 예정표라는 인식이 있다. 말을 바꾸면 발달을 새로운 요소가 가산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본 발달전체상이 차츰 분화하고 변화해가는 프로세스로서 본다는 것이다. epigenetic principle로 적용되는 발달이론에 의하면 발달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정리된 것을 갖고 있으며, 그 '정리된 것'으로부터 각 부분이 발생하고 각 부분은 모두 분화하여 각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해가기까지 그것을 목표로 전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리된 것'을 '구조'로 이해한다면 발달이란 그 구조의 변화, 대체, 즉, 재구조화로 그 재구조화의 방식이 발달의 각 단계에 의해 다른 '위기(crisis)'로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Erikson의 발달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가로 8개, 세로 8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 평면그림표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우선 세로축에 따라 8개의 발달단계가 축적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가를 말하자면 가로 첫째줄에 나란히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8개 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grand plan 속에 포함되어 있는 8개의 '특질' 즉, 각각 고유한 시기에서 발현해나오는 덕(德, virtue)이다. 개인은 8개의 덕에 상당하는 특질을 8개군으로 하여 발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갖추고 있다. 만일 건강한 성격의 특질이라고 말한다면 그 특질은 grand plan 속에서 처음부터 8개군에 속해 있으면서 각각 발현해 나오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각선에 의해 구별된 빈 공간이다. Erikson 자신이 "이 그림표는 그 공백인 모든 칸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1968, p. 272)."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8개의 단계를 세로줄로 나란히 하여 이해해서는 모처럼 평면그림표로 제시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Erikson은 그 빈 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대각선의 밑에는 '위기' 해결의 각각 전조를 위해서 여백이 있는 것이며, 그것들은 모든 발달의 발단으로부터 시작된다(1968, p. 270).

말하자면 대각선 밑의 빈칸은 그것을 세로축으로 비추어 볼 때 시간적인 '과거'를 시각화하고 있으며, 생육사적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위한 것이다.

> 대각선의 위는 이들(위기와 그 해결인 덕)로부터 생긴 파생물이나 성장도상에 또는 성숙한 인격에서 볼 수 있는 위기나 덕의 변형을 암시하기 위한 빈칸이다(1968, p. 270).

즉, 대각선보다 위의 빈칸은 시간적인 '장래'를 시각화하고 있다. 이들 빈칸은 세로축에 따라 볼 때, 과거보다 미래에로 계속하는 시간적 연속성을 전생애에 걸쳐서 시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가로 8개 세로 8개의 평면그림표는 개인의 인생을 그 시간적인 전체성에서 발달적으로 본 것인 동시에 개인의 퍼스낼리티를 구성하는 특질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제는 그림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인간형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첫번째로 이 평면그림표는 '심리사회적 위기의 표준적인 순서(the normative sequence)'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발달에서 지체, 왜곡, 갈등을 빈칸에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발달에서 '퇴행(regression)'이란 것이 이 평면그림표 속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퇴행이 그 이전의 발달에서 무엇인가를 되바꾸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의 단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Erikson 자신이 1982년 *The Life Cycle Completed*에서 시도하고 있듯이 유아기로부터 시간의 흐름에 순행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노년기 쪽에서부터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 간다고 하는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Gandhi를 볼 때 '한 사람의 유년시대를 후에 그가 이룬 것의 일부로서 재구성하는 것(1969, p. 98)'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인생의 의미는 되돌이켜 보았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 때 그 때의 현재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발달의 앞을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인생이라는 시간적 전체성 속에 지금의 문제를 놔두고 보는 것이다. 이 그림표는 그러한 입장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표에는 '대(vs.)'로 연결된 일군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그 '해결'로 보이는 '덕(virtue)'이 기재되어 있다. 이 '덕'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Erikson은 인생을 갈등의 모습으로 보면서 그림표에 정식화할 때에는 같은 것을 '갈등'이라고 하지 않고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기'라는 용어는 본래 의학의 영역에서 '회복되는가 아니면 나쁘게 되는가하는 분기점, 이 쪽인가 저 쪽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시기(1965, p. 139)'이고, 말을 바꾸면 '전진인가 퇴행인가, 통합인가 지체인가를 결정하는 순간'(1968, p. 270)을 의미하고 있다.

즉, 위기란 것을 갈등과 정적, 구조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발달적으로 갈등이 다음의 갈등으로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움직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그 점에서 예컨대, '대' 대신에 동사를 사용하여 청년기가 위기에 있다면 '아이덴티티 혼란감을 극복하려하면서 아이덴티티감을 획득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양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 대립모습은 보통 '긍정적(positive)'과 '부정적(negative)'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2가지 별개의 '특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특질에 대한 '느끼는 방식'의 구별인 것이다.

위기를 구성하는 대립내용은 각기 '……의 느낌(a sense of……)'을 부가하여 이해하면 무난하다고 Erikson은 말하고 있다(1980, p. 58).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구분은 그 단계에서 자아에 있어서 '친화적'(syntonic)인가 아니면 '위화적'(dystonic)인가 하는 느끼는 방법의 차이인 것이다. '학동기의 위기'를 예로 들자면 신체, 자아, 능력 등 모든 발달의 결과, 그 단계에 특유한 심리사회적 특질이 성립되어 간다. 그것이 그 단계의 자아에 있어서 친화적으로 느낄 때 '근면감(industry)'이란 이름이 붙고, 이와 반대로 자아에 있어서 위화적으로 느낄 때 '열등감(inferiority)'이란 이름이 붙게 된다는 식이다.

따라서 이 2가지 항목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하나의 심리사회적 특질이 자아에 의해 친화적으로 느끼는 경우와 위화적으로 느끼는

경우를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가지 항목을 연결시키는 '대(vs……)'는 사실은 '자아의 안쪽'에서 생기는 것으로 위기란 자아의 안쪽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기의 '해결'이란 그 단계에서 생긴 심리 사회적 특질을 자아가 스스로의 내부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극복해가는 말하자면 그 특질을 친화적으로 느끼는 이상으로 친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덕(virtue)'의 획득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Erikson은 그림표의 남용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건강한 퍼스낼리티'를 언급하는 가운데 주장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여기에서 제출된 그림표에 대한 오용의 한가지는 신뢰감(또는 요청되는 다른 긍정적인 감각)을 특정한 단계에서 한번만에 획득되면 완전하게 보증되는 것 같은 '달성'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로부터 열심히 '달성기준'을 만들려고 하며, 간단하게 '기본적 불신뢰감' 등의 부정적 감각을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정적 감각은 전생애를 통해서 긍정적 감각과 역동적 관계와 대항관계(對抗關係)를 나타내고, 또 계속 나타내려는 것이다.
>
> 어린이가 일정한 단계에서 보증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일정한 비율(a certain ratio)로 만일 이 균형이 긍정적인 것에 기울어진다면(toward the positive), 그 아동은 나중에 위기에 부딪칠 때 전체적인 발달이 상처를 받지 않고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단계에서든지 새로운 내적 갈등이나 외적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않고 지나는 것과 같은 즉, 선한 것(a goodness)이 달성된다고 하는 생각은 성공이데올로기를 어린이의 발달에 투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데올로기는 우리들의 사적, 공적인 매일 생활의 꿈속에 위험할 정도로 침투해 있으며, 오늘 의미있는 실존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할 만큼 작용하고 있다(1980, p. 63).

여기에는 몇가지 중요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위기의 해결에서 획득되는 덕(virtue)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일정한 비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해결'로 인해 그 개인의 위화감이 없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아의 내부에는 대립하는 2개의 감정이 계속 남아서 오히려 자아 그 자체가 통합성을 보다 높인다는 방식으로 위화적으로 느끼고 있던 것을 친화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되는 것, 그리하여 자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통합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자아의 강도(ego strength)'라고 불리우는 덕(virtue)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덕(virtue)은 한번 획득하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Erikson이 언급한 것은 만일 이 균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위기에 부딪쳤을 때 발달을 전면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덕(virtue)을 달성목표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것조차 획득되어 있으면 갈등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Erikson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rikson이 말하고 있는 '건강'이란 갈등이 없는 강한 퍼스낼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계속하고 다음 다음으로 상처받기 쉬운 시기를 지나면서 보다 통합적으로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자아가 그러한 '바람직한 비율'로 위기를 극복하는 덕(virtue)을 획득해가는 보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아는 스스로 생성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균형을 취하는 것일까? Erikson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람직한 비율'에 이르는 보증을 할 만한 것이 자아 그 자신 가운데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그는 그 보증은 '타인'이나 '사회'에서 찾는다. 이 경우, '사회'란 것은 '확대해가는 중요한 타자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한 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이 없는 한, 위기는 '바람직한 비율'에 이를 수가 없다. 예컨대, 유아는 어머니라고 하는 '타자의 원조'없이는 '희망'이라고 하는 덕(virtue)을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Erikson이 말하고 있는 자아는 사회에 의해 지지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으로 극히 '위험한 것'이고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인 것이다.

그러면 그 사회가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는 있을 수 있는가? 예컨대, 과도하게 금욕적인 가정 속에서 자아가 억압되는 경우, 만일 국가의 논리 앞에 개인의 발달이 비뚤어지게 되는 경우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비율 그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Erikson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The Life Cycle Completed(1982)에서 Erikson은 그것을 '병적인 것의 핵-기본적인 혐오 경향(Core pathology : Basic Antipathies)'이란 명칭을 붙이면서 '기본적인 강함'과 전적으로 동일한 자격에서 그 부정적 경향을 이론화하고 있다. 즉, 자아의 발달이 '바람직한 비율'을 형성하는 가능성과 '바람직하지 않은 비율'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같은 자격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2가지의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자아 그 자체의 강함과 사회에 의한 보증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비율'이란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과제가 됨과 동시에 사회에 있어서도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Erikson의 이론에 대해서 Rozen(1976)은 "우리들은 인간의 비극이 Erikson의 그림표의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 정서적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p. 118).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Erikson의 발달이론에 비판을 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Rozen의 비판이 1976년에 나온 것이고 Erikson에 의한 '병적인 것의 핵'의 이론화가 1982년에 제시된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그 비판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핵심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rikson의 이론은 실로 '정서적 갈등'을 만들면서 살아 온 사람들의 공감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며, '건강'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며 또 그 때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획득되는가, 그러한 통찰을 이론으로 정착시켜가는 것에서 Erikson의 발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맺는 말

이상으로 Erikson이 제시하고 있는 발달의 grand plan을 그림으로 표시한 epigenetic chart를 중심으로 그의 발달이론을 고찰하여 본 바와 같이 그의 발달론은 본래 신경병의 정신병리를 해명하고자 시작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명에네르기의 창조성이나 자아의 자율성, 활동성과 같은 성격의 건강한 발전적인 힘을 강조한다. 갈등에 휩쓸리어 신경병적 자아로부터 건강한 자아에로 처벌의 공포나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초자아에서 퍼스낼리티의 통합과 삶의 보

람을 주는 자아이상으로 변환하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Erikson의 발달이론은 인간형성이론으로 '세대계승', '역사', 그리고 '자기초월'이라고 하는 3가지 기둥을 설정하고 각각을 분절화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이 영역구분은 고정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이 있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오히려 인간형성을 통합적, 전체적으로 그리면서도 하나의 정리된 것으로 변모해가는 흐름을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가설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epigenetic chart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한장의 평면그림표로 사실은 입체공간의 한 장면을 추상적으로 잘라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 그것은 구체적인 인간형성의 프로세스 속에서 본다면 전후로 다른 세대의 그림표와 조금씩 달리하면서 단계모습을 축적해가는 세대계승 주기의 한개의 코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코마는 정치사나 사회사 또는 문명사와 같은 거대한 역사 속에서 혹은 한개의 시점(historical moment)인 것이며, 나아가서 심리사회적인 그러한 평면에 대하여 수직적으로 현재의 자신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려볼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세대계승의 문제, 역사의 문제 그리고 자기초월의 문제가 어디까지나 한사람 한사람의 생에 있어서 발달의 프로세스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발달은 '세대계승', '역사' 그리고 '자기초월'이라고 하는 3개의 방향을 가진 입체공간 속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세대계승', '역사' 그리고 '자기초월'이라는 각 문제를 한사람 한사람의 발달프로세스 속에서 중복되는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Luther라고 하는 역사상 한 인물의 청년기 속에서 아버지와의 내면적 갈등을 보면서 중세 카톨릭교회가 지배한 시대의 전환을 중복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신앙에 의한 죄의 용서라고하는 자기초월을 중복시켜 보고자 한다.

우리들이 실제적인 문제로 되돌아 가보면 한사람의 어린이의 발달을 볼 때, 부모나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학적, 교육학적으로 보는 눈과 변동하는 정치, 사회상황 속에서 사회과학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나아가서 죽음을 의식하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같은 실존적, 존재론적인 의문에도 관심을 갖는 눈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살아있는 아동의 모습을 이러한 3가지 이론구조에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하나의 정리된 것을 가진 살아있는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3가지 방향성을 시야에 둔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Erikson의 발달론은 한편에서는 epigenetic chart가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듯이 발달을 '분화'의 프로세스로서 미분화한 것이 순서를 갖고 분화해가는 모습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발달을 항상 하나의 정리된 것을 가진 모습으로 구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그 하나의 정리된 것이 발달프로세스에 맞추어 통합되어 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항로를 '발달적' 또는 '구조적'으로 '분화'와 '통합'을 동시에 묘사하려고 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아청 역 (1983). **현대발달심리학 : 평생발달의 심리**. 서울 : 형설출판사.

박아청 (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정민사.

박아청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교육과학사.

박아청 (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II**. 서울:중앙적

성출판사.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 psychoanalysis and sociology of gender.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6*, 47-58.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Erikson, E. H. (1965).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 Norton.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Erikson, E. H. (1969). *Gandhi's Truth*. New York : Norton.

Erikson, E. H.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 selected papers, In : Psychological Issues*. Vol. 1, No. 1(A Reissue).

Homans, P. (1978). The Significance of Erikson's psychology for modern understanding of religion. In P. Homans(Ed.), *Childhood and Selfhood*. Associated University Press.

Gilligan, C. (1978).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a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Rozen, P. (1976). *Erik H. Erikson : the power and limits of a vision*. New York: Free Press.

Schlein, S. (Ed.), (1987). *A Way of Looking at Things : selected papers from 1930 to 1980*. New York : Norton.

Weinstein, F. & Platt, M. (1973). *Psychoanalytic Sociolog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人間發達研究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94. *Vol. 1, No. 1,* 100－111

A Review of Erikson's Epigenetic Principle on Human Development

A-Chung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In this article the epigenetic chart supposed by Erikson as a theory of development was analysed and discussed with respect to three frame-works as follows : 'generation', 'history' and 'transcendent.' Epigenetic principle on the developmental theory was considered as a human formaton theory which was not static but dynamic. As a result of reviewing Erikson's articles on the epigenetic chart including the terms used in it, such as 'versus', 'virtue' term, Erikson's developmental theory and his view on development must be understood as a integrated model for human development included the three frame-works as suggested. And this article proposes further research that specify and identify his terms more actually.

Key Words : life-cycle · epigenetic chart · epigenetic development · human-development